

충남 지역노동시장 연구회 결과보고서

1. 모임 운영 개요

1) 취지

- 충남 지역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2) 운영기간

- 2014년 4월 1일 ~ 9월 30일

3) 참여자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홍성효, 연구모임 책임)

2. 주요 활동 내용

1) 월별 정기 모임

- 4월 : 충남 지역노동시장의 개관과 특성
- 5월 : 여성창업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 6월 :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현황과 개선과제
- 7월 : 창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
- 8월 : 충남 수출과 일자리 창출
- 9월 : 지역고용정책 해외 사례와 충남의 일자리 창출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

2) 비정기 모임

- 외부발제자 초청



충남 지역노동시장의 개관과 특성

1. 개관

1) 고용관련 지표

- 충남의 고용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201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5.9%로 제주(67.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고용률은 64.2%로 역시 제주(66.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실업률은 2.6%로 제주(1.3%), 전북(1.5%), 충북과 전남(1.7%), 경남(2.0%), 대전(2.1%), 울산과 강원(2.3%), 경기(2.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표 1_1 광역시도별 고용관련 지표

단위 : 천명, %

지역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서울	8,517	5,340	5,156	184	62.7	60.5	3.4
부산	2,950	1,698	1,638	59	57.5	55.5	3.5
대구	2,074	1,238	1,199	38	59.7	57.8	3.1
인천	2,377	1,527	1,472	56	64.3	61.9	3.6
광주	1,247	740	721	19	59.3	57.8	2.6
대전	1,278	764	748	16	59.8	58.6	2.1
울산	933	559	546	13	59.9	58.6	2.3
경기	10,031	6,300	6,141	160	62.8	61.2	2.5
강원	1,251	739	722	17	59.1	57.7	2.3
충북	1,301	824	810	14	63.3	62.2	1.7
충남	1,832	1,208	1,177	31	65.9	64.2	2.6
전북	1,511	916	903	13	60.6	59.7	1.5
전남	1,486	951	934	16	64.0	62.9	1.7
경북	2,250	1,471	1,423	48	65.4	63.2	3.3
경남	2,711	1,677	1,643	34	61.9	60.6	2.0
제주	466	315	311	4	67.6	66.7	1.3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하반기 기준

- 충남의 고용관련 지표들을 학력별로 구분하면, 취업자는 고졸이 가장 많은 461.7천명에 해당하고 대졸 이상이 382.9천명, 초졸 이하가 207.1천명, 그리고 중졸이 125.1천명으로 조사됨

-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졸 이상(81.4%), 고졸(69.4%), 초졸 이하(52.1%), 중졸(4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고용률과 실업률 역시 동일한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_2 충남의 학력별 고용관련 지표

단위 : 천명, %

학력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초졸 이하	403.3	210.2	207.1	3.1	52.1	51.3	1.5
중졸	256.1	125.9	125.1	0.7	49.2	48.9	0.6
고졸	686.9	476.8	461.7	15.1	69.4	67.2	3.2
대졸 이상	486.1	395.4	382.9	12.5	81.4	78.8	3.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하반기 기준

- 고용관련 지표들을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는 미혼 238.4천명, 유배우 849.8천명, 사별 71.0천명, 이혼 49.2천명으로 나타나고 실업자는 미혼의 경우에 가장 많은 18.5천명에 해당하고 유배우의 경우가 10.0천명, 이혼의 경우가 2.2천명인 반면 사별의 경우에 가장 적은 0.8천명으로 조사됨
- 경제활동참가율은 이혼의 경우에 76.0%로 가장 높고 고용률은 유배우의 경우에 73.5%로 가장 높으며 실업률은 미혼의 경우에 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_3 충남의 혼인상태별 고용관련 지표

단위 : 천명, %

혼인상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미혼	454.8	238.4	219.9	18.5	52.4	48.4	7.8
유배우	1143.2	849.8	839.8	10.0	74.3	73.5	1.2
사별	169.8	71.0	70.2	0.8	41.8	41.3	1.1
이혼	64.7	49.2	47.0	2.2	76.0	72.6	4.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하반기 기준

- 2013년 하반기 기준 도내 시군별로 고용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천안시(306.8천명), 아산시(150.7천명), 당진시(90.1천명), 서산시(86.3천명) 등의 순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반면 실업자 역시 유사한 순으로 많이 분포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태안군과 청양군에서 각각 75.1%와 73.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계룡시에서 51.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실업률은 천안시에서 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산시 2.3%, 당진시 1.9%, 태안군 1.7% 등으로 높은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청양군으로 0.4%로 조사됨

표 1_4 충남 시군별 고용관련 지표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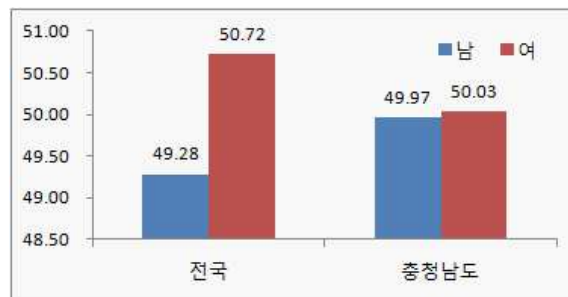
지역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천안시	505.9	306.8	299.0	7.8	60.6	59.1	2.5
공주시	101.6	61.2	60.4	0.9	60.3	59.4	1.4
보령시	87.5	58.9	58.1	0.8	67.3	66.4	1.4
아산시	237.6	150.7	147.2	3.5	63.4	61.9	2.3
서산시	136.0	86.3	85.1	1.2	63.5	62.6	1.4
논산시	108.3	67.8	67.4	0.4	62.6	62.2	0.6
계룡시	28.7	14.8	14.6	0.2	51.5	50.9	1.2
당진시	133.1	90.1	88.3	1.7	67.7	66.4	1.9
금산군	47.8	31.9	31.7	0.2	66.7	66.2	0.6
연기군	102.7	60.6	60.1	0.5	59.0	58.6	0.8
부여군	61.7	40.0	39.7	0.3	64.8	64.3	0.9
서천군	50.2	33.4	33.0	0.5	66.6	65.7	1.4
청양군	27.9	20.4	20.3	0.1	73.0	72.7	0.4
홍성군	75.8	52.1	51.8	0.3	68.8	68.4	0.5
예산군	72.1	46.8	46.3	0.6	64.9	64.1	1.2
태안군	55.4	41.6	40.9	0.7	75.1	73.8	1.7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하반기 기준

2) 신규구직의 분포

-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2012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신규구직의 성별 비율은 전국의 경우 여성이 50.72%로 남성에 비해 1.44%p 높은 반면 충남은 여성의 비중이 50.03%로 남성에 비해 0.06%p 높아 성별 차이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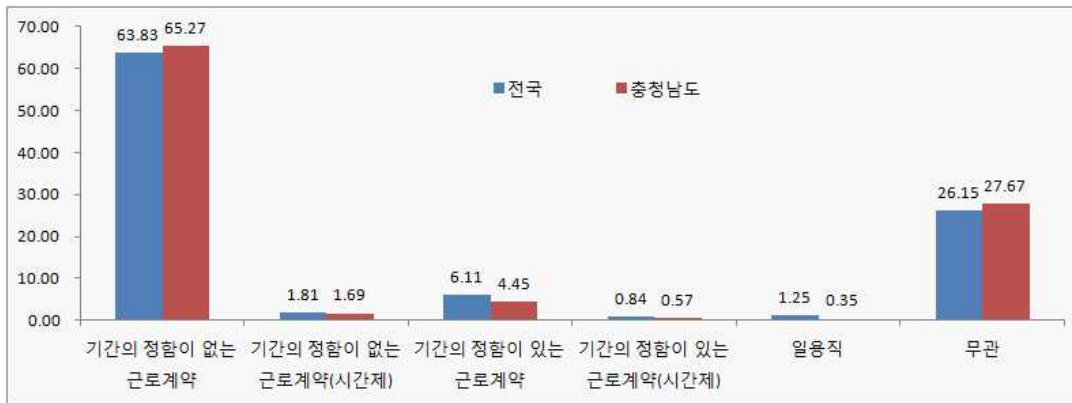
그림 1_1 성별 구직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신규구직의 고용형태별 분포에서는 충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비중이 65.27%로 전국에 비해 1.44%p 높은 반면 시간제나 일용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비중은 전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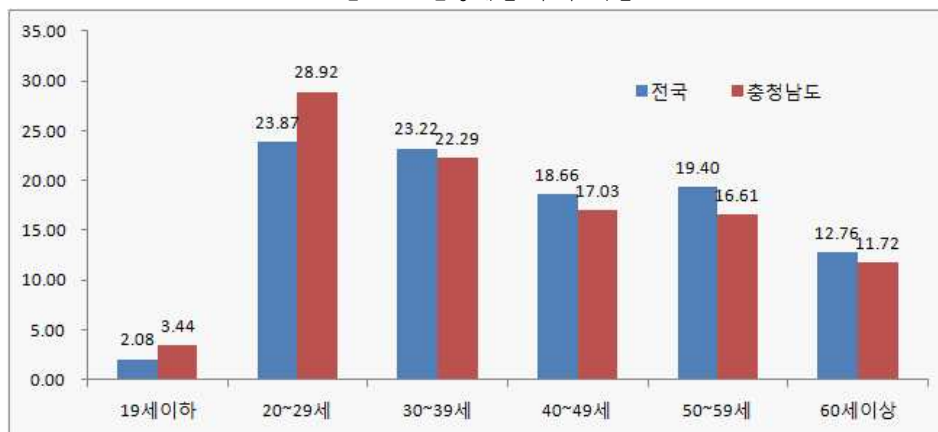
그림 1.2 고용형태별 구직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신규구직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에 비해 19세 이하와 20~29세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20대의 경우 전국에 비해 5.05%p 높음
- 반면, 50대에서의 충남의 비중은 16.61%로 전국의 19.40%에 비해 2.79%p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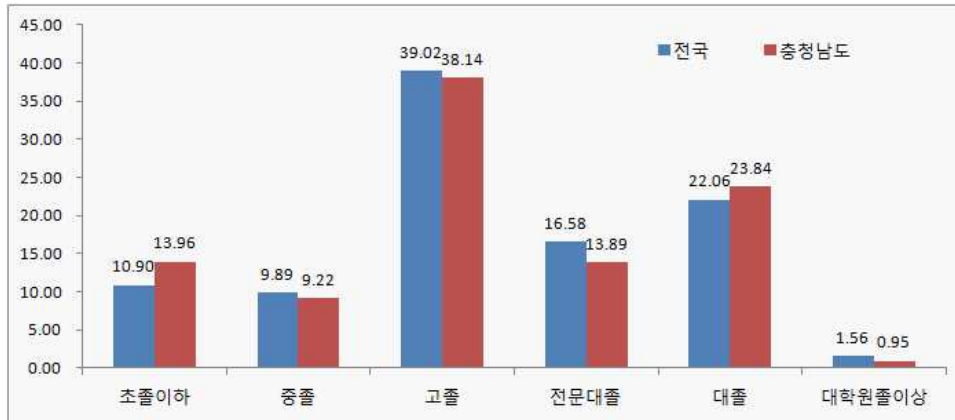
그림 1.3 연령대별 구직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신규구직의 학력별 비중에서 충남은 전국에 비해 초졸 이하의 경우(전국 10.90%, 충남 13.96%)와 대졸의 경우(전국 22.06%, 충남 23.84%)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신규구직자의 학력에 따른 분포가 보다 넓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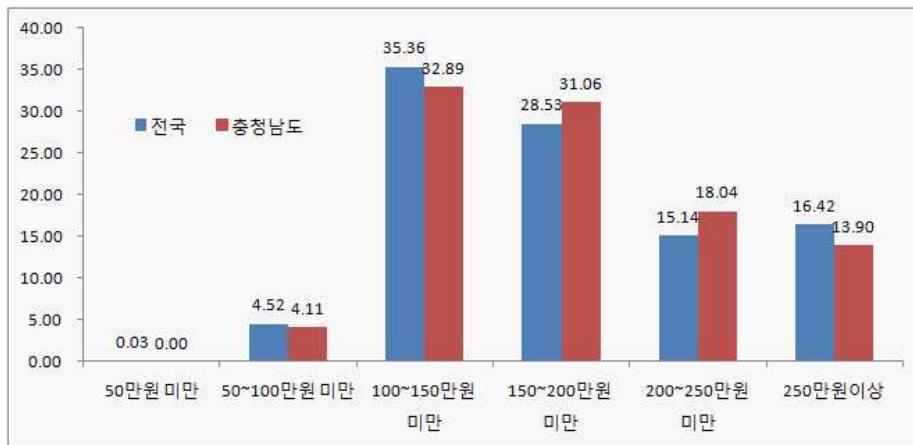
그림 1_4 학력별 구직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신규구직의 임금대별 비중에서 충남은 전국에 비해 150~200만원 미만과 200~25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_5 임금대별 구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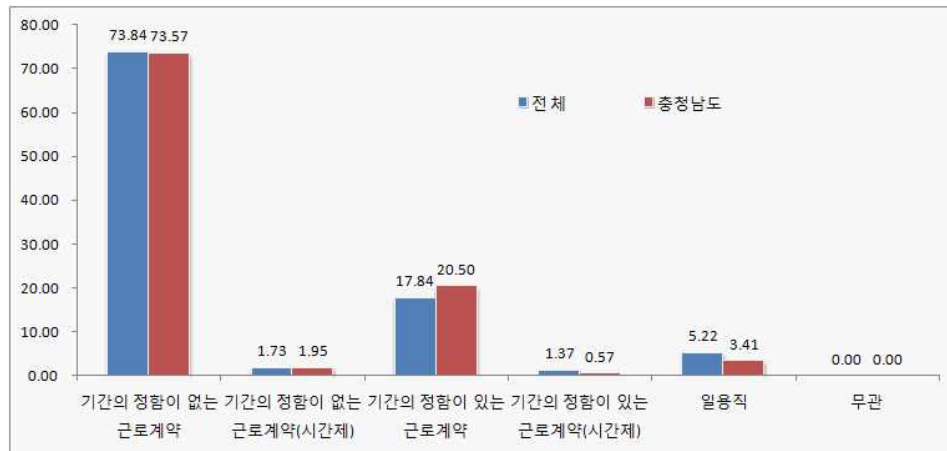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3) 신규구인의 분포

-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2012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신규구인의 고용형태별 비중에서 충남은 전국에 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2.66%p 높아 구직의 경우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남
- 시간제가 아닌 경우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신규구인의 비중은 전국이 73.84%이며 충남은 이와 유사한 73.57%로 나타남

그림 1.6 고용형태별 구인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신규구인의 연령대별 비중에서 충남은 전국에 비해 20~29세와 30~39세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구인에 있어 연령대와 무관한 경우의 비중은 충남이 75.21%로 전국의 77.03%에 비해 1.8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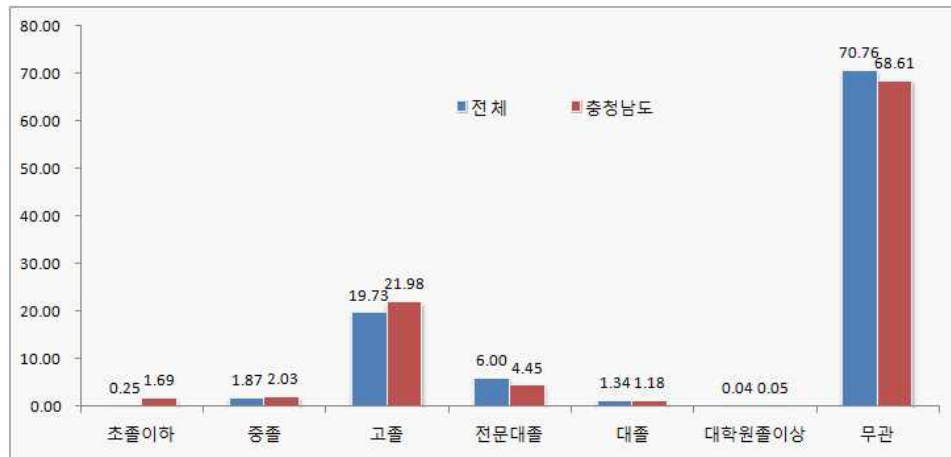
그림 1.7 연령대별 구인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신규구인의 학력별 비중의 경우 충남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졸(2.25%p), 초졸이하(1.44%p), 중졸(0.16%p)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1_8 학력별 구인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신규구인의 임금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에 비해 100~150만원 미만과 200~250만원 미만에서 각각 0.92%p와 3.41%p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1_9 임금대별 구인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4) 신규 구직·구인 간 불일치

- 신규인력에 대한 구직과 구인 간 불일치의 정도를 임금대별로 살펴보면, 100~150만원 미만에서 전국은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반면 충남은 초과수요가 나타남
- 충남은 50만원 미만과 100~150만원 미만의 임금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신규인력에 대한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임금대별 신규 인력 초과수요(명)

임금	전 체	충청남도
50만원 미만	316	3
50~100만원 미만	-8,023	-254
100~150만원 미만	-15,278	1,566
150~200만원 미만	-29,867	-401
200~250만원 미만	-22,265	-317
250만원 이상	-34,197	-78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표 1-6 직업별 신규 인력 초과수요(명)

중분류 직업	전체	충청남도
관리직	-12,106	-282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	-37,499	-1,278
금융보험 관련직	-1,401	-41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5,417	-190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797	-21
보건, 의료 관련직	-7,241	-80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769	-116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7,261	-125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401	-149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2,905	-5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3,976	-373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5,685	-159
음식서비스 관련직	-9,268	-264
건설 관련직	-11,409	37
기계 관련직	2,595	406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5,491	540
화학 관련직	3,503	335
섬유 및 의복 관련직	382	66
전기, 전자 관련직	-1,624	144
정보통신 관련직	-3,599	-128
식품가공 관련직	1,099	19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4,418	807
농림어업 관련직	3,592	545
군인	-36	-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신규인력에 대한 구직과 구인 간 불일치의 정도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충남은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에서 가장 큰 초과수요(807명)가 발생하고, 그 다음은 농림어업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기계 관련직, 화학

관련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초과수요가 발생함

- 반면, 충남의 신규인력 초과공급은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1,278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경비 및 청소 관련직(373명)과 관리직(282명) 등에서 크게 나타남

2. 특성

1) 양호한 고용관련 지표

- 201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충남의 고용관련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에 해당하며, 특히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타 광역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높으나 실업률 역시 높게 나타나고, 미혼인 경우 고용률은 낮은 반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충남 북부와 남부 간 차이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등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에 이들 지역에서의 실업률 또한 높게 나타남

3. 토의

1) 지역노동시장의 지리적 경계

- 지역노동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단순히 행정구역에 의해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통근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된 거주지와 통근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통근가능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나 거주지역 내 노동자 가운데 몇 %의 통근자를 포함하는 지역을 통근가능지역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판단이 필요함
-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에 포함된 금산군 거주 통근자 4,829명 가운데 5.53%는 금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통근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충남 이외

지역으로의 통근의 경우 대전시로 195명, 충북으로 20명, 전북으로 13명 등과 같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수요와 공급 간 숙련도 불일치의 측정

- Estevao and Tsounta(2011), Peters(2000)

- $SMI_t = \sum_{j=1} (S_{jt} - M_{jt})^2$, 여기서 j와 t는 각각 숙련도와 시점, S_{jt} 는 j숙련도를 지닌 인구의 비중으로 측정된 공급, M_{jt} 는 j숙련도를 지닌 산업에서의 피고용인의 비중으로 측정된 수요를 나타냄

여성창업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1. 여성기업가와 여성고용

1) 대표자 성별 여성고용의 차이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11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신생기업의 여성고용비중은 대표자 성별로 차이를 보임. 전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수 2~9인의 경우 여성대표자 기업에서 남성대표자 기업에 비해 37%p만큼 여성고용비중이 더 높으며,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경우 24%p만큼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고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_1 신생기업의 대표자 성별 여성고용비중의 차이

산업	종사자수 기준 기업체 규모	여성기업가	남성기업가	차이
전 산업	2~9인	0.74	0.37	0.37**
	10인 이상	0.66	0.42	0.24**
제조업	2~9인	0.56	0.25	0.31**
	10인 이상	0.47	0.29	0.18**
도매 및 소매업	2~9인	0.72	0.34	0.38**
	10인 이상	0.71	0.45	0.2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인	0.71	0.32	0.39**
	10인 이상	0.71	0.52	0.19**

주 : **는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1

출처 : 홍성효(2014)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12년 자료를 이용해 충남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1년 자료를 이용한 전국 대상 분석결과와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음
- 다만, 전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충남 소재 신생기업에 있어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의 여성고용비중은 대표자가 남성인 기업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 반면, 종사자수가 2~9인 이하인 경우 대표자 성 간 여성고용비중은 충남 소재 신생기업에서 전국 소재 신생기업의 그것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표 2_2 충남 소재 신생기업의 대표자 성별 여성고용비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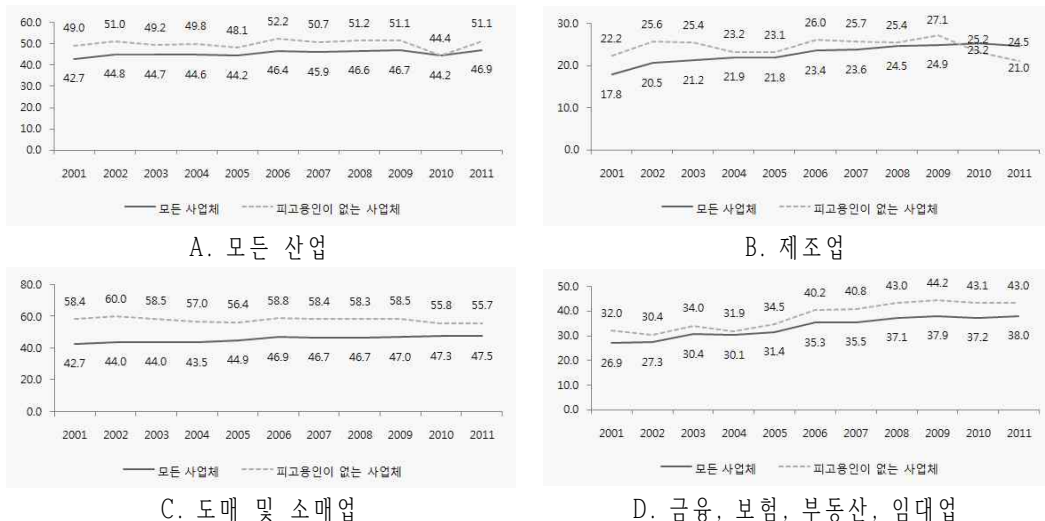
산업	종사자수 기준 기업체 규모	여성기업가	남성기업가	차이
전 산업	2~9인	0.72	0.38	0.35**
	10인 이상	0.67	0.40	0.27**
제조업	2~9인	0.48	0.22	0.26**
	10인 이상	0.42	0.28	0.14**
도매 및 소매업	2~9인	0.68	0.34	0.34**
	10인 이상	0.80	0.54	0.2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인	0.67	0.33	0.34**
	10인 이상	0.72	0.50	0.22**

주 : **는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2

2) 여성창업의 변화

- 2000년대 들어 연도별 신생기업에서 여성기업가의 비중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냄. 특히, 2011년에 해당 수치는 46.9%에 이르며, 제조업의 경우 2001년 17.8%에서 2011년 24.5%로 6.7%p 상승하였음

그림 2.1 산업별 연도별 신생기업에서 여성기업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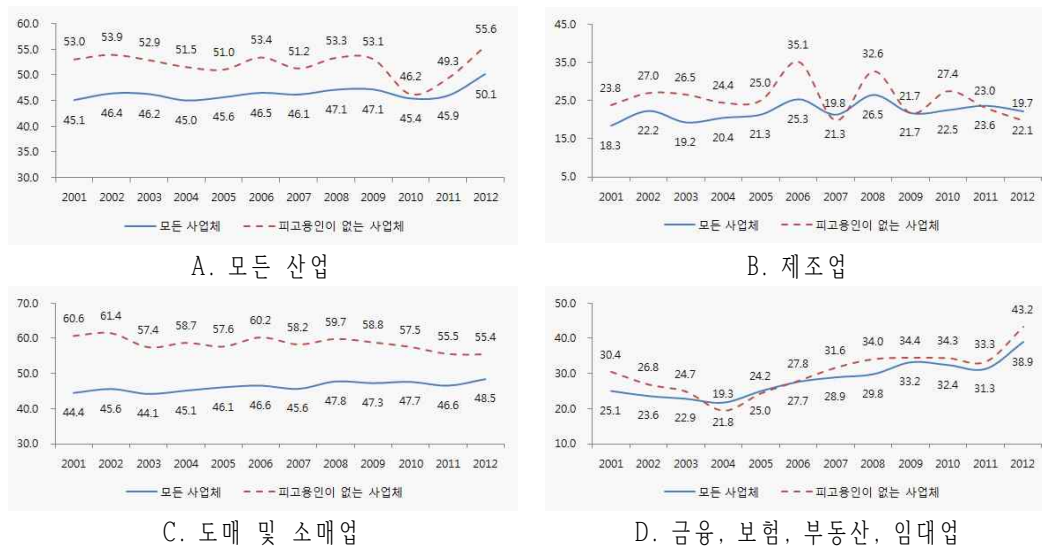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출처 : 홍성호(2014)

- 연도별 신생기업에서 여성기업가의 비중을 충남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2001년 45.1%에서 2000년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에 다소 하락하나 2012년에는 50.1%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피고용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2009년까지 여성기업가의 비중이 50.0%대 초반에서 변동하다가 2010년에 46.2%로 크게 하락하나 2012년에 다시 55.6%의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제조업의 경우, 전반적인 추세는 전국의 추세와 비교적 유사하지만 수치들이 상승과 하락을 큰 폭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은 여성기업가의 비중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피고용인이 없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2004년에 여성기업가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후에 2011년을 제외하고 2012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2.2 충남의 산업별 연도별 신생기업에서 여성기업가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2. 여성창업과 집적의 경제¹⁾

1) 여성기업가의 지리적 분포

- 여성기업가의 입지에 있어서의 지리적 분포는 이들의 지리적 격리의 정도를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음. 특정 집단 혹은 계층의 지리적 격리의 정도는 Massey &

1) 본 절은 홍성효(2014)의 결과를 주로 요약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할 것.

Denton(1988)에 의한 비유사성 지수(dissimilarity index)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측정됨

- $$\text{비유사성 지수(dissimilarity index)} = \frac{\sum_{i=1}^n [t_i | (p_i - P)|]}{2TP(1-P)}$$
- 여기서, t_i 는 읍면동 i 의 사업체수, T 는 $\sum_i t_i$, p_i 는 읍면동 i 의 사업체 가운데 여성기업가의 비중, P 는 모든 읍면동 i 를 포함하는 해당 시군구 전체에 걸친 여성기업가의 비중을 나타냄
-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모든 산업에 걸친 여성기업가의 시군구 내 읍면동 간 격리의 정도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 평균적으로 0.0967로 조사됨. 이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의 9.67%가 다른 읍면동-상대적으로 여성기업가의 분포가 낮은 읍면동-으로 이전해야 해당 시군구 전체적으로 읍면동별 여성기업가의 분포가 전체 기업의 분포와 같아짐을 의미함
 - 사업체를 피고용인이 없는 경우-즉, 자영업-에 한정하면, 해당 지수의 값은 0.1317로 높아져 이 경우에 대표자 성별 기업의 지리적 격리가 보다 심해짐을 볼 수 있음
 - 산업별로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조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에 비해 여성기업가의 지리적 격리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3 산업별 여성기업가의 지리적 격리(시군구별 비유사성 지수의 평균)

산업	산업코드	사업체 구분	
		모든 사업체	피고용인이 없는 사업체
전산업		0.0967	0.1317
제조업	10-33	0.1882	0.3115
도매 및 소매업	45-47	0.1177	0.1723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4-66, 68, 69	0.2114	0.2887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1

출처 : 홍성효(2014)

- Tobit 모형을 이용한 신생기업 입지결정에서의 집적의 경제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주어진 읍면동 내에서 특정 중분류 제조업에 속하는 기존 기업의 수가 이의 표준편차인 32.806개만큼 증가하면, 이 지역 내 해당 산업에서는 $3.103(= 0.0946 \times 32.806)$ 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다음 해에 추가적으로 입지하게 됨을 나타냄
- 여성기업가의 입지결정에 대한 분석결과-열 (3)과 (4)-와 남성기업가의 입지결정에 대한

분석결과-열 (5)와 (6)-를 비교하면, 비록 여성기업가의 경우에도 지역화경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의 크기는 남성기업가에 있어서의 효과와 비교하여 1/3에도 미치지 못함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자료에 대해 분석한 Rosenthal & Strange(2012)에서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여성기업가의 경우 남성기업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군집의 정도가 덜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전체 기업의 지리적 분포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이들 여성기업가가 집적의 경제-즉, 다른 기업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게 입지함으로써 인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함을 의미함

표 2_4 Tobit 모형을 이용한 신생기업 입지결정에서의 집적의 경제(기존 기업의 수) 효과 추정결과

	전체		여성		남성	
	(1)	(2)	(3)	(4)	(5)	(6)
집적의 경제						
지역화경제	0.0946** (20.49)	0.0941** (19.96)	0.0260** (9.44)	0.0253** (9.25)	0.0787** (19.80)	0.0782** (19.29)
도시화경제		0.0001* (2.30)		0.0002** (5.27)		0.0001** (3.05)
사업서비스업	0.0009** (2.60)	-0.0001 (0.18)	0.0011** (3.27)	-0.0005 (1.31)	0.0010** (3.40)	-0.0001 (0.31)
상수항	-2.1369** (4.97)	-2.4471** (5.74)	-2.5868** (6.82)	-3.1175** (7.73)	-2.7482** (6.23)	-3.1653** (7.13)
고정효과 시군구	251	251	251	251	251	251
Pseudo R ²	0.1983	0.1985	0.1090	0.1102	0.1988	0.1992
좌측단절	24,750		31,746		26,885	

주 : 관측수는 36,349개의 읍면동-중분류 제조업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냄.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0, 2011

출처 : 홍성호(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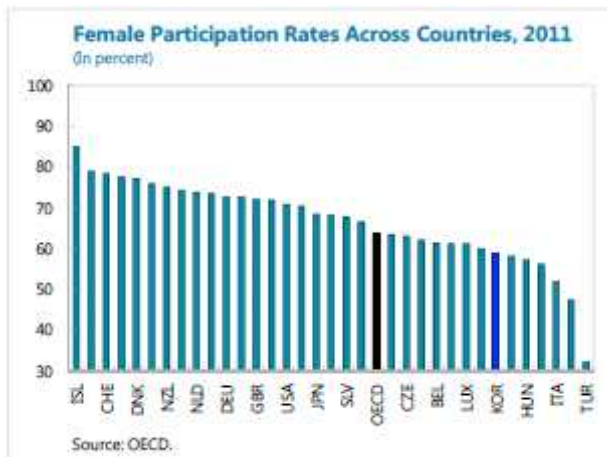
3. 여성의 경제활동참여²⁾

1) 여성 노동시장참여의 의의

- 저출산의 영향으로 노동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정책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는 고령화 및 고령에서의 여성의 높은 비율로 인해 노동공급

2) 이 절은 IMF의 최근 연구보고서인 'Strategies for Reforming Korea's Labor Market to Foster Growth'의 분석결과에 기초하고 있음

부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Dao et al.(2014), Strategies for Reforming Korea's Labor Market to Foster Growth, IMF Report

- 여성의 실제 노동시장참여율에 비해 이들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선호가 보다 크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제약하는 시장왜곡들을 제거함으로써 총소득과 후생의 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남녀 간 형평성의 개선에 기여할 것임

2) OECD 대비 한국에서의 여성 노동시장참여율 결정요인

- 분석자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1985~2011년의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에 해당함
- 회귀분석모형은 $LPR_{jt} = \alpha_j + \tau_t + \beta' X_{jt} + \epsilon_{jt}$ 와 같이 정의되며, LPR_{jt} 은 노동참여율, α_j 는 국가에 대한 고정효과, τ_t 는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 X_{jt} 는 일련의 정책변수들을 포함하며, ϵ_{jt} 는 오차항을 나타내고,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춘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변수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치를 빼줌
- 분석결과에 의하면, (1) 홀벌이와 가구 내 두 번째 임금근로자 간 세율의 차이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효과; (2) 자녀양육수당의 증가는 여성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효과; (3) 시간제 노동에 대한 세금 우대는 여성의 노동참여를 증가시키는 경향; (4) 피고용 가능성의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2_5 여성 노동시장참여 결정요인 분석결과

Independent variable	Baseline			Robustness checks			
	(I)	(II)	(III)	(IV)	(V)	(VI)	(VII)*
Tax second earner	-0.182** (-2.12)	-0.339*** (-3.73)	-0.230** (-2.46)	-0.189** (-2.43)	-0.264*** (-3.19)	-0.309** (-2.25)	-0.350*** (-4.20)
Childcare benefits	0.389** (2.18)	0.448** (2.06)	0.467** (2.30)	0.263* (1.61)	0.369** (2.18)	0.811*** (3.15)	0.559*** (3.45)
Tax incentive to part time	0.281* (1.68)	0.372* (1.80)	0.179 (0.98)	0.216* (1.76)	0.032 (0.22)	-0.513 (-1.06)	-
Public spending on pre-primary education (log)	-0.002 (-0.45)	-0.005 (-0.77)	-0.002 (-0.58)	-	-	-0.005 (-0.22)	-
Public expenditure on family (log)	0.005 (0.40)	0.011 (1.37)	-0.051 (-0.84)	-	-	0.015 (0.57)	-
Male unemployment (log)	-0.030** (-2.34)	-0.041*** (-3.56)	-0.046*** (-4.24)	-0.046*** (-3.88)	-	-0.038* (-1.78)	-0.041** (-2.34)
Female unemployment (log)	-0.025** (-2.24)	-0.011 (-0.91)	-0.006 (-0.52)	-0.015* (-1.07)	-	0.001 (0.03)	-
Number of children (log)	0.068 (0.57)	0.041*** (3.67)	0.290*** (4.10)	-	-	0.324 (0.88)	-
EPL (log)	-	-	-	-	-	-0.024 (-0.23)	-
Wage gap (log)	-	-	-	-	-	-0.002 (-0.17)	-
Female tertiary education (log)	-	-	-	-	-	-0.085 (-0.82)	-
GDP per capita (log)	-	-	-	-	-	0.051 (1.11)	-
Country-specific time trends	No	Yes	No	No	No	No	No
Time FE	Yes	No	No	Yes	Yes	Yes	Yes
N	237	237	237	333	333	66	66
Adjusted R ²	0.99	0.99	0.99	0.99	0.98	0.99	0.99

Note: Country fixed effects included but not reported. T-statistics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results based on stepwise regression.

출처 : Dao et al.(2014), Strategies for Reforming Korea's Labor Market to Foster Growth, IMF Report

표 2_6 여성 노동시장참여 결정요인 분석결과, 실업률의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

Independent variable	OLS	IV ^a
	(I)	(II)
Tax second earner	-0.339*** (-3.73)	-0.196** (-1.99)
Childcare benefits	0.448** (2.06)	0.426** (2.49)
Tax incentive to part time	0.372* (1.80)	0.329* (1.94)
Public spending on pre-primary education (log)	-0.005 (-0.77)	-0.009 (-1.00)
Public expenditure on family (log)	0.011 (1.37)	0.001 (0.06)
Male unemployment (log)	-0.041*** (-3.56)	-0.028 (-1.06)
Female unemployment (log)	-0.011 (-0.91)	-0.029 (-1.00)
Number of children (log)	0.041*** (3.67)	0.064 (0.52)
Kleibergen-Paap statistic (p-value in parentheses)	-	19.864 (0.02)
Hansen J statistic (p-value in parentheses)	-	5.946 (0.65)
Country-specific time trends	Yes	No
Time FE	No	Yes
N	237	237
Adjusted R ²	0.99	0.99

Note: Country fixed effects included but not reported. T-statistics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ublic expenditures on pre-primary education and family, number of children, and unemployment rates instrumented by their lagged values (up to 3 lags), as well as all exogenous variables of the model

출처 : Dao et al.(2014), Strategies for Reforming Korea's Labor Market to Foster Growth, IMF Report

- 반면, 취학 이전 교육에 대한 공적인 지출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공적인 지출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실업률의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를 고려해 해당 변수의 과거치를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로 포함하는 IV분석의 결과는 OLS분석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4. 토의

1) 여성고용-특화 산업

- 기업가 혹은 대표자의 성(gender)에 따른 여성고용의 차이와 이에 근거한 여성창업의 활성화도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보다는 산업 간 여성고용의 차이 혹은 여성기업가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보다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_5 종사상 지위별 지역별 고용에서 여성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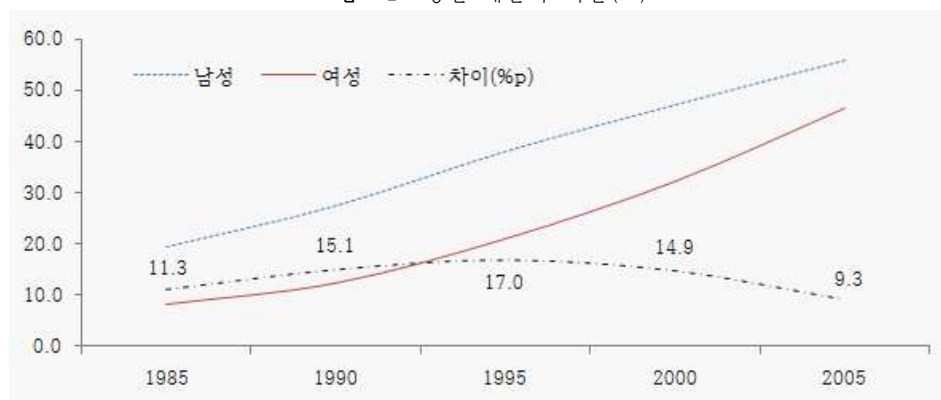
산업	전국		충남	
	전체	상시직	전체	상시직
농업, 임업 및 어업	24.91	19.08	23.93	18.58
광업	12.79	8.87	11.55	10.21
제조업	26.58	24.61	24.84	23.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54	11.81	10.77	10.2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5.28	14.19	16.00	12.89
건설업	12.44	16.31	9.94	12.63
도매 및 소매업	46.15	37.88	47.93	37.50
운수업	10.97	14.85	10.47	13.01
숙박 및 음식점업	64.38	61.60	65.62	65.9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9.91	28.38	29.08	25.22
금융 및 보험업	54.54	43.10	53.40	41.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19	28.21	34.38	29.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83	30.71	29.17	30.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6.79	46.15	35.58	37.5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14	27.30	29.65	26.27
교육 서비스업	62.13	60.93	55.77	52.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43	81.23	78.70	81.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04	40.39	45.65	40.2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67	33.95	43.36	31.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2

2) 정책적 지원에 대한 근거

-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학력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성별 대졸자 비율의 남성과 여성 간 차이-즉, 남성의 대졸자 비율에서 여성의 대졸자 비율을 뺀 수치-는 1985년 11.3%p에서 1990년 15.1%p, 1995년 17.0%p로 상승하다고 2000년에 14.9%p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다시 2005년에 9.3%p로 분석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그림 2_2 성별 대졸자 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각 년도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현황과 개선과제

1. 현황 및 특성

1) 일반현황

- 2012년 6월말 기준 충남에는 103개의 사회적기업이 소재하며, 이들 가운데 48개소가 2011년에 인증을 받았으며 2010년에 30개소, 2012년에 19개소,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개소가 인증을 받음
- 이들 가운데 21개소가 고용노동부 인증업체이며, 나머지 82개소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에 해당함

2) 특성

- 2012년 6월말 기준 기업형태별로는 주식회사가 58.3%, 영농조합법인이 14.6%, 비영리민간단체가 9.7%, 사단법인과 농업협동조합 생산자단체가 각각 6.8%, 사회복지법인이 1.9%, 그리고 재단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각각 1.0%를 차지함
- 업종에 따른 분포는 농림어업이 18.4%, 제조업이 27.2%, 그리고 3차 산업이 54.4%를 차지함. 3차 산업은 세분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6%, 도매 및 소매업 16.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청소),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택배서비스업 각각 12.5%, 건설업 10.7%, 숙박 및 음식점업 8.9%, 교육서비스업 7.1%로 구성됨
- 인증형태별로는 일자리제공형(Job)이 76.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이 각각 7.8%, 지역사회공헌형이 5.8%, 그리고 그 외의 유형이 1.9%를 차지함
- 충남 사회적기업 대표자의 특성을 보면, 15.5%가 무보수의 명예직이고 남성인 경우의 비율은 69.9%이며 연령은 평균적으로 47세이나 최저 26세에서 최고 77세로 다양하게 분포함

2.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관련 선행연구

1) 김혜원(2011)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가운데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 내 과잉고용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지원 종료 후에 이러한 과잉고용의 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큼을 이유로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함
- 특히, 지원이 중단된 24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고용유지율-인증받기 바로 이전 해의 총근로자수 대비 인건비 지원 중단 혹은 종료 후의 총근로자수 비율-은 총수입에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인건비 지원 비중-인증받기 이전 해의 총고용인원 대비 인건비 지원 인력의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음을 보여줌
- 매출액 비중의 증가는 해당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통한 사업의 확장으로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고용유지율이 높아짐을 지적함
- 반면, 인건비 지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은 고용유지율과 비선형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인건비 지원 인력의 비중이 80% 이하인 경우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80%를 넘는 경우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 부분적으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 중에 과잉고용과 지원 중단 혹은 종료 후에 이러한 과잉고용의 조정을 야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있음을 제시함

2) 선남이·박능후(2011)

-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경제적 순편익, 정규직 비율, 취약계층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이들은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립이후 사업개월수, 사업체형태의 명확도, 인증기관,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유무와 특성을 고려함
-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 사업체형태의 명확성, 사업기간, 최고경영자의 유무인 반면 사회적기업의 정규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체형태의 명확성과 최고경영자의 학력으로 나타남

3) 유일(2012)

- 제주도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도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자원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가 양성의 차별화 전략수립, 사회적기업 친화적 시장조성과 효과적인 홍보 등이 필요함을 주장함

4) 김종수·홍성효(2013)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지원사업의 고용창출관련 상반되는 이론적 배경인 구축효과와 내적인 규모의 경제에 대한 가능성을 충남 소재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함
- 분석의 결과는 인건비 지원이 해당 사회적기업의 자체 예산에 의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인증 전 기존 고용을 지원에 의한 고용으로 대체하는 구축효과를 야기하기 보다는 노동력의 증대를 통한 내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지원에 의한 고용 이외에 자체 예산에 의한 고용이 증가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더불어, 인증 전 정규직 고용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증 후 보다 큰 정규직 고용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생산시설과 같은 자본측면에서 열악성을 지녀 노동투입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추가적인 노동투입은 오히려 혼잡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증가에 대한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함
- 정규직 고용변화의 경우 지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증 전에 비해 인증 후에 해당 사회적기업의 자체 예산에 의한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지원금이 2배로 증가하면, 인증 전후 정규직 고용은 대략 0.05명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수가 부(-)의 값을 가져 지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사회적기업의 자체 예산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의 결과는 지원금에 의한 고용창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표 3_1 인증 전후 충남 사회적기업 자체 고용의 변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 비정규직	
	(1)	(2)	(3)	(4)	(5)	(6)
Subsidy	0.1812*	0.1695*	-0.0722	-0.1003	0.1373	0.1207
	(2.74)	(2.51)	(0.49)	(0.70)	(1.52)	(1.18)
Corporate	0.6552	0.5927	-0.9382	-1.0912	-0.3846	-0.4513
	(0.75)	(0.66)	(1.12)	(1.33)	(0.29)	(0.37)
SIC						
농림어업	-0.5585	-0.3521	-0.5988	-0.2676	-0.5624	-0.2351
	(0.41)	(0.32)	(0.77)	(0.31)	(0.46)	(0.25)
3차 산업	-0.3011	-0.1360	2.4591*	2.7684*	1.9517	1.8938
	(0.35)	(0.19)	(2.24)	(2.54)	(1.36)	(1.29)
Age	0.1313	0.1302	-0.0211	-0.0277	0.1037	0.1016
	(1.35)	(1.46)	(0.26)	(0.40)	(0.66)	(0.74)
E ₀	-0.5167*	-0.5318*	0.0398	0.0622	-0.1161 ⁺	-0.1180
	(2.37)	(2.23)	(0.52)	(0.89)	(1.78)	(1.74)
Years	-0.3130	-0.3981	0.7374	0.4077	-0.0703	-0.1674
	(0.86)	(0.98)	(1.24)	(0.63)	(0.13)	(0.24)
CN	-1.1615	-1.0922	-0.4553	-0.4011	-3.3061	-3.0067
	(0.90)	(0.67)	(0.17)	(0.16)	(1.21)	(0.99)
Job	1.0331	1.1362	-0.0347	0.0518	0.1258	0.3042
	(1.37)	(1.27)	(0.03)	(0.04)	(0.08)	(0.19)
CEO						
무보수		-0.2735		-0.7757		-1.0180
		(0.25)		(0.90)		(0.83)
남성		-0.7347		-1.8149 ⁺		-0.8030
		(0.69)		(1.75)		(0.42)
연령		-0.0023		0.0200		-0.0420
		(0.05)		(0.59)		(1.00)
상수항	-0.9630	-0.1770	1.4796	2.5263	2.0543	4.7967*
	(0.55)	(0.08)	(0.59)	(0.71)	(0.97)	(2.65)
Adj. R ²	0.2425	0.2227	0.0932	0.0961	0.0010	-

주 : 1) 회귀분석에 포함된 관측수는 103임

2)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은 권역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3) ⁺, *, **는 각각 10%, 5%, 1%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4) 산업에 대한 기준더미는 제조업임

출처 : 김종수·홍성호(2013)

3. 충남 사회적기업 고용의 변화³⁾

1) 전반적인 고용변화

3) 분석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충남사회적기업실태조사 2013년 원자료를 이용함

- 충남사회적기업의 총인력 변화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0~2013년의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4.78명 증가하였으나 2012~2013년의 기간에는 단지 1.06명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일자리 사업 지원에 의한 고용을 제외한 해당 사회적기업의 자체 고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력의 평균적인 변화는 2011~2013년의 기간에 2.28명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인력의 변화 역시 2010~2013년의 기간에 평균적으로 4.13명만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1~2013년의 기간에는 2.42명만큼만 증가하고, 2012~2013년의 기간에는 단지 0.82명만큼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⁴⁾

표 3_2 충남사회적기업의 고용변화

구분	기간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총인력	2010~2013	55	4.78	16.97	-12	120
	2011~2013	81	2.91	9.25	-12	75
	2012~2013	100	1.06	5.54	-16	42
일반인력	2010~2013	23	1.17	4.46	-9	11
	2011~2013	46	2.28	9.62	-8	59
	2012~2013	73	0.77	4.67	-11	31
취약계층 인력	2010~2013	23	4.13	6.16	-5	19
	2011~2013	43	2.42	4.54	-6	19
	2012~2013	71	0.82	3.47	-18	14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기업실태조사, 2013

2) 기업특성 간 고용변화의 차이

- 2012년과 2013년 사이 고용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고용을 총인력, 지원에 의한 고용을 제외한 일반인력, 취약계층 인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고용의 증가에 있어 기업특성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함 :

$$y_j = \beta_0 + Z_j\zeta + \epsilon_j$$

여기서, y_j : 사회적기업 j 의 해당 인력이 2012년과 2013년 사이 증가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

4) 취약계층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

z_j : 2012년 총인력으로 측정된 기업규모, 인증후 경과년수, 기업형태로서의 주식회사 여부, 인증유형으로서의 고용노동부 인증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으로서의 일자리 제공형 여부, 업종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매트릭스⁵⁾

ϵ_j : 통상의 오차항

표 3_3 충남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따른 고용창출에서의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

	총인력	일반인력	취약계층인력
2012년 총인력	-0.0015 (-0.71)	0.0032 (0.66)	0.0040 (0.95)
인증후 경과년수	-0.0273 (-0.70)	0.0659 (0.89)	0.0607 (0.81)
주식회사	0.1388* (2.41)	0.2841* (1.97)	0.1982 (1.41)
고용노동부 인증	0.0490 (0.48)	-0.0239 (-0.27)	0.0175 (0.12)
일자리 제공형	0.0281 (0.20)	-0.3508* (-2.26)	0.4218** (5.89)
업종			
제조업	-0.0629 (-0.68)	-0.1615 (-0.98)	0.0240 (0.09)
주택/건설업	0.1997 (0.61)	-0.2059** (-5.46)	0.0967 (0.16)
도소매업	-0.1459 (-1.57)	-0.2873** (-4.06)	0.4419 (0.95)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0.3487** (5.65)	-0.2523** (-3.30)	0.3781 (1.44)
보건/의료업	0.2822 (1.22)		0.2467 (0.41)
문화/예술/관광 관련 서비스업	0.0009 (0.01)	-0.2943 (-1.27)	0.3388 (1.17)
재활용/환경 관련 서비스업	0.0869 (0.33)	-0.2474** (-3.09)	0.0708 (0.44)
2012년 인건비 지원액	0.0001 (0.08)	0.0024** (6.95)	-0.0028 (-1.20)
Pseudo R ²	0.0586	0.1671	0.1467
관측수	100	70	71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내며,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업종의 준거집단은 농/임/수산/광업에 해당함.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기업실태조사, 2013

-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총인력이 증가할 가능성은 해당 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이거나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5) 기업형태는 주식회사, 사단/재단법인,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기타로 구분되고, 인증유형은 고용노동부 인증, 충남형 예비 인증, 부처형 예비 인증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로 구분됨

나타남

- 일반인력이 증가할 가능성은 주식회사이거나 농/임/수산/광업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2012년 인건비 지원액의 규모가 큰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일자리 제공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인력이 증가할 가능성은 유일하게 일자리 제공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4. 토의

1) 사회적기업 선정시 고용창출능력에 대한 평가

-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은 이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선정 혹은 지원규모의 결정에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모형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사회적기업의 형태, 규모, 업종, 업력 등 특성 간 상이할 것이며, 이와 같은 특성별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고 추정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원이 완료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취약계층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도 정책적 측면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사려되는 반면에, 기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아쉬움이 있음

2) 일자리의 질에 대한 다차원적 고려의 필요

- 국제노동기구(ILO)의 'decent work' : 남녀 모두의 자유, 평등, 고용의 안전성, 인간의 존엄 등을 기반으로 '괜찮은(decent)',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정의됨.⁶⁾ 고용기회, 철폐되어야 할 노동,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의 안정성, 일과 가정의 조화, 고용의 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적 맥락 등 11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

6) Anker et al.(2002)은 고용기회, 자유, 생산적 노동, 평등, 작업장 안전 및 고용의 존엄을 강조하고, Ghai(2006)는 노동권, 고용,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강조함.

- UNECE/ILO/Eurostat 공동 TF팀의 'quality of employment' : 작업장 안전과 윤리성, 임금과 복지혜택, 노동시간과 일과 가정의 조화,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및 직장관계, 기술개발과 평생교육, 직장 내 관계 및 직무 동기 등으로 측정 지표를 구성
- EU의 'quality in work' : 내재적 일자리의 질, 평생학습과 경력개발, 남녀평등,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 유연성과 안정성, 노동시장의 접근성, 작업조직 및 일과 가정의 조화,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다양성과 비차별, 전반적 경제성과와 생산성 등에 의해 지표화
- 결국, 고용은 물론 사회적 보호나 소통, 기본적인 권리를 포괄해야 함

3) 충남의 지역노동시장에 적합한 일자리 질 지수의 개발이 필요

- 독일의 DGB-index, 캐나다의 job quality indicators, 체코의 subjective quality of working like index
- 충남의 지표개발시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현황뿐만 아니라 시계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 가능

4) 충남 사회적기업 DB구축을 통한 정책연구의 활성화

-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도내 개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음
- 비록 본 조사가 개별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와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고용창출방안 등과 같은 정책연구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사회적기업 특성별 고용창출효과의 차이나 지원내용별 고용창출효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남 소재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효과 증대를 위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 고용창출과 더불어, 성장 혹은 지속성에 대한 분석 역시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 또한 정책적으로 중요할 것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

1. 개 관

1) 신생기업과 이에 의한 고용변화 추세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01~2012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연도별 신생기업의 비중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전국은 대체로 14%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충남은 12%대를 전후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록 분석기간 동안 충남의 신생기업체수 비중은 전국에 비해 낮았으나 격차는 2002년의 3.2%p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의 0.8%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_1 신생기업 비중(%) : 사업체수 기준 전산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1~2012

그림 4_2 신생기업 비중(%) : 사업체수 기준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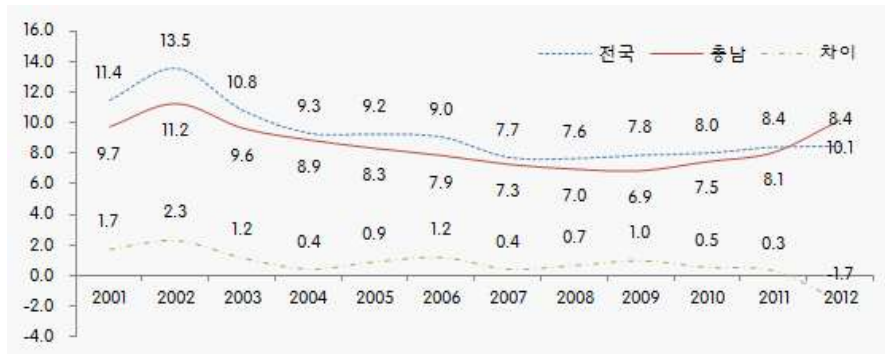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1~2012

- 분석을 제조업에 한정하는 경우,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신생기업의 비중은 전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12%대를 나타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에

6%대로 낮아졌다가 2010년 이후에 8%대로 회복하였음

- 충남 역시 전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지만 분석기간 동안 전국의 비중에 비해 낮았으나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0.6%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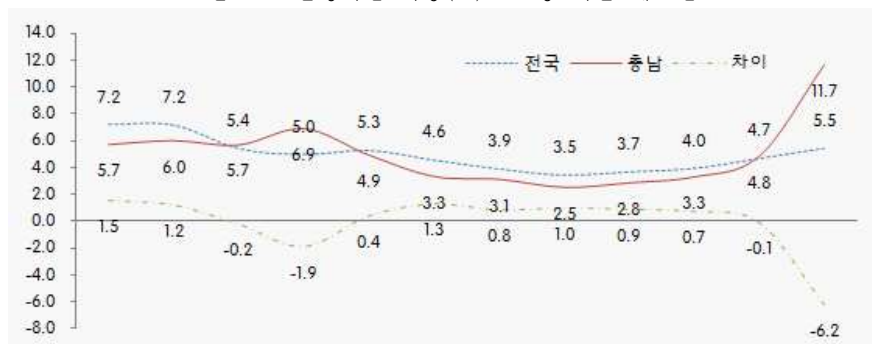
그림 4_3 신생기업 비중(%) : 고용 기준 전산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1~2012

- 고용을 기준으로 전산업 대상 신생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10~13%대로 나타나지만 이후 2000년대 중반의 9%대에서 다시 2000년대 후반에 7%대까지 하락했다가 2010년부터 8%대로 안정세를 나타냄
- 충남의 경우 2011년까지 전국의 수치에 비해 2%p 이내에서 낮은 수치로 연도별로는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지만 2012년에는 10.1%를 기록해 전국의 8.4%에 비해 1.7%p 높게 나타남

그림 4_4 신생기업 비중(%) : 고용 기준 제조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1~2012

- 고용을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3.5%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2년에는 5.5를 기록하는 반면 충남은 대체로 2010년까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이후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특히 2012년에 11.7%로 전국에 비해 6.2%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신생기업의 비중을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충남은 전국에 비해 최근에 오히려 비중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고, 이는 충남의 신생기업들에게 있어 최근에 고용규모가 평균적으로 보다 커졌음을 나타냄

표 4_1 신생기업의 고용창출 규모에 대한 지역 간 차이

산업	지역	고용 평균	t-값
전산업	충남 이외	3.17	6.18**
	충남	4.16	
농업, 임업 및 어업	충남 이외	7.71	0.38
	충남	6.16	
광업	충남 이외	6.90	0.85
	충남	4.50	
제조업	충남 이외	6.23	9.04**
	충남	29.3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충남 이외	10.51	0.01
	충남	10.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충남 이외	5.27	0.79
	충남	6.37	
건설업	충남 이외	4.59	1.10
	충남	4.00	
도매 및 소매업	충남 이외	2.50	2.20*
	충남	2.36	
운수업	충남 이외	1.80	1.92 ⁺
	충남	2.30	
숙박 및 음식점업	충남 이외	2.68	8.69**
	충남	2.3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충남 이외	5.30	0.40
	충남	6.20	
금융 및 보험업	충남 이외	11.87	0.62
	충남	9.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충남 이외	2.39	1.53
	충남	2.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충남 이외	4.19	0.63
	충남	3.5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충남 이외	9.95	0.29
	충남	9.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충남 이외	42.03	0.83
	충남	10.58	
교육서비스업	충남 이외	3.05	0.22
	충남	2.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충남 이외	7.27	1.47
	충남	6.4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충남 이외	2.29	0.88
	충남	2.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충남 이외	2.27	1.31
	충남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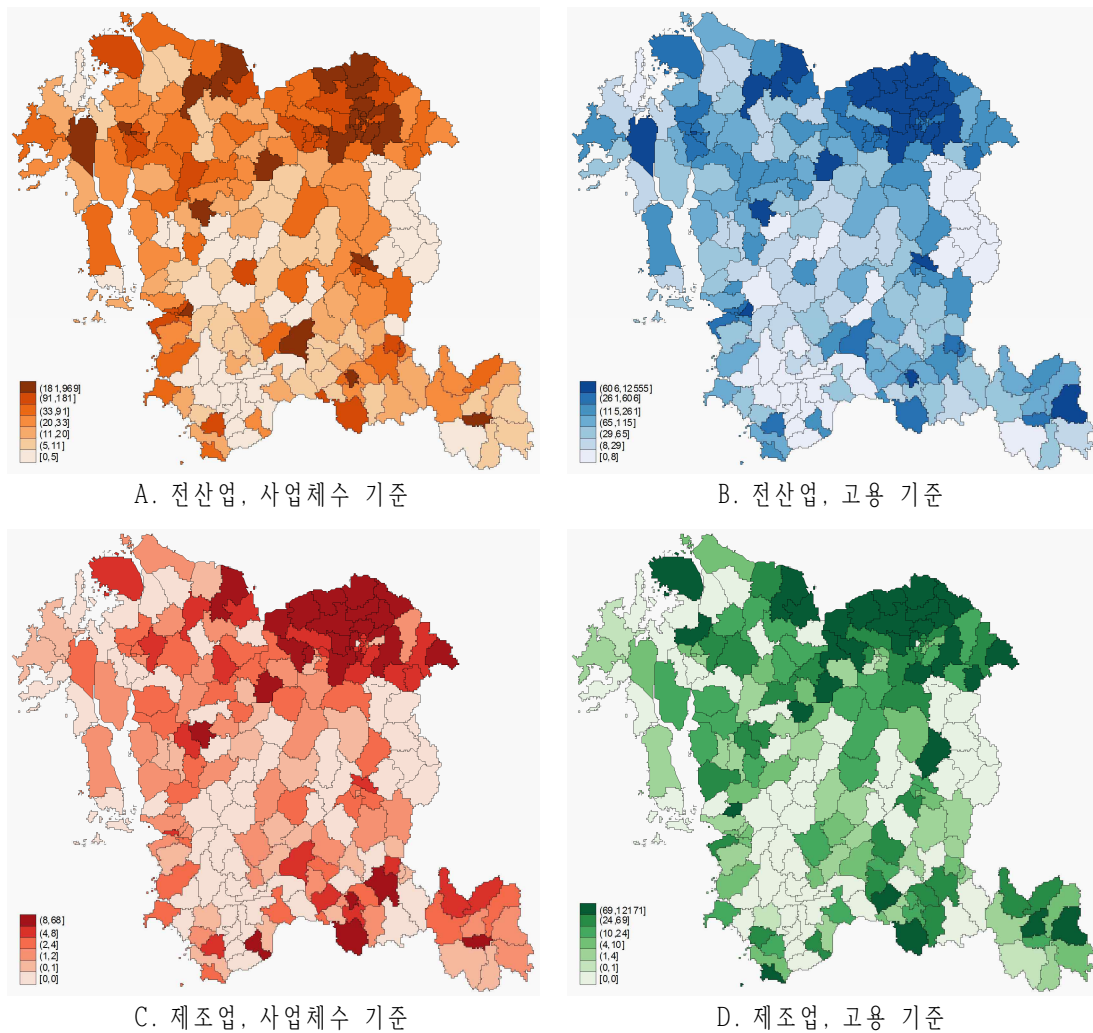
주 :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2

- 신생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에서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면, 충남 소재 신생기업은 평균적으로 4.16명을 고용하는 반면 충남 이외 지역 소재 신생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3.17명의 고용만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 대분류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업에서 충남 소재 신생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타 지역 소재 신생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오히려 충남 소재 신생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2) 신생기업의 지리적 분포

그림 4.5 신생기업의 지리적 분포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2

- 2012년 기준 신생기업과 이에 의한 고용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등을 포함하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되었음을 볼 수 있음
-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북부권과 더불어 논산시와 금산군 내 일부 읍면동에서 신생기업과 이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반면, 내륙지역은 신생기업과 이의 고용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함을 볼 수 있음

2. 창업과 고용관련 선행 실증분석연구

1) 이동주 외(2011)

- 창업은 10년에 걸쳐 고용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구미의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직접효과-대체효과-유인효과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 지식 서비스업 창업의 고용창출력이 높으며, 지식서비스업 창업은 직접고용효과가 큰 반면 제조업 창업은 장기 유인효과가 크게 나타남
- 기술수준별로는 고기술 제조업 창업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고용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이는 유발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 분석기간이 충분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려됨), 중기술 제조업 창업은 고용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저기술 제조업 창업은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의 활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창업기업의 수적 증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창업의 질과 혁신성, 시장경쟁과 시장선택의 효율성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하며, 창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되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체질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함

2) 유한옥(2012)

-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한 분석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인 창업투자보조금사업이 해당 수혜기업들의 고용을 개선시키지는 못했음을 제시함

3) 강유리(2013)

-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특히, 미국은 지속적으로 창업가를 위한 연결성(connectedness)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제시함

3. 토의

-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의 중요성은 기존 기업체의 고용증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창업에 의한 일자리의 질(지속성, 근로여건, 급여수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더불어, 창업에 의한 일자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생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테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원격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료의 사업체 패널화가 가능하고 survival regression을 통해 요인을 밝히거나 Kaplan-Meier의 생존함수 추정을 통해 비모수적으로 특성 집단 간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임
-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창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를테면, 엔젤투자자금의 지역 내 유치-의 마련이 필요함

충남 수출과 일자리 창출

1.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1) 연도별 현황

- 충남의 연도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2000년에 16,991백만불에서 2013년에 65,185백만불로 연평균 성장률은 10.9%를 나타내 동기간 9.5%를 나타낸 전국의 수치에 비해 1.4%p만큼 높음을 볼 수 있음
- 시계열적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서는 충남과 전국 간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남

표 5_1 연도별 수출액

단위 : 백만불, %

연도	충남		전국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2013	65,185	5.1	559,632	2.1
2012	62,031	3.5	547,870	-1.3
2011	59,954	10.9	555,214	19.0
2010	54,054	37.1	466,384	28.3
2009	39,428	-8.2	363,534	-13.9
2008	42,936	-10.2	422,007	13.6
2007	47,823	22.7	371,489	14.1
2006	38,961	16.2	325,465	14.4
2005	33,520	14.5	284,419	12.0
2004	29,272	47.8	253,845	31.0
2003	19,806	30.7	193,817	19.3
2002	15,151	30.0	162,471	8.0
2001	11,653	-31.4	150,439	-12.7
2000	16,991	-	172,268	-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충남의 연도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2000년에 9,978백만불에서 2013년에 33,980백만불로 연평균 성장률은 9.9%를 나타내 동기간 9.4%를 나타낸 전국의 수치에 비해 0.5%p만큼 높음을 볼 수 있음

표 5_2 연도별 수입액

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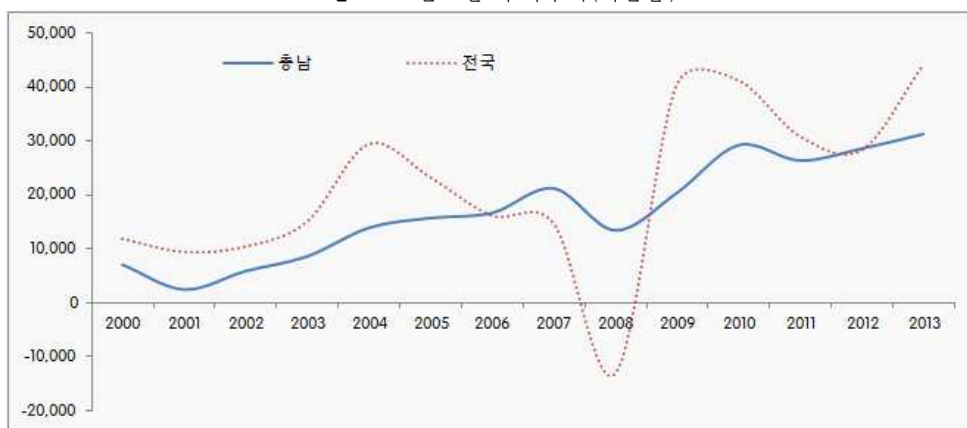
연도	충남		전국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2013	33,980	1.4	515,586	-0.8
2012	33,509	-0.4	519,584	-0.9
2011	33,640	35.1	524,413	23.3
2010	24,893	30.1	425,212	31.6
2009	19,129	-35.3	323,085	-25.8
2008	29,556	10.8	435,275	22.0
2007	26,674	19.3	356,846	15.3
2006	22,362	25.2	309,383	18.4
2005	17,863	15.8	261,238	16.4
2004	15,426	37.0	224,463	25.5
2003	11,262	20.6	178,827	17.6
2002	9,335	1.0	152,126	7.8
2001	9,245	-7.3	141,098	-12.1
2000	9,978	-	160,481	-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충남의 연도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0년에 7,013백만불에서 2013년에 31,205백만불로 연평균 12.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10.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전국에 비해 1.5%p 높은 수치를 나타냄

그림 5_1 연도별 무역수지(백만불)



자료 : 한국무역협회, 연도별 수출입

2) 대상 국가별 수출입

- 충남의 수출액을 대상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對 중국 수출이

30,856백만불로 가장 많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수치에 해당함

- 중국 다음으로는 홍콩, 미국, 대만, 일본, 베트남, 멕시코 등의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음

표 5_3 충남 수출액의 국가별 분포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중국	27,366	12.7	30,856	12.8
홍콩	8,736	-8.7	8,175	-6.4
미국	4,148	2.7	4,978	20.0
대만	2,610	-31.7	3,273	25.4
일본	3,629	-10.9	2,967	-18.2
베트남	2,210	138.1	2,562	15.9
멕시코	1,392	-16	1,422	2.2
슬로바키아	1,862	27.7	1,254	-32.6
싱가포르	1,091	7	831	-23.8
말레이시아	544	-44.5	773	42.2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 한국무역협회

표 5_4 충남 수입액의 국가별 분포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쿠웨이트	5,497	66.3	5,813	5.7
중국	2,636	-9.0	3,131	18.8
일본	2,516	-4.3	3,004	19.4
호주	2,053	-14.4	2,420	17.9
카타르	4,092	46.0	2,145	-47.6
이란	2,528	-47.2	2,041	-19.3
사우디아라비아	1,364	-6.4	1,807	32.5
아랍에미리트 연합	2,182	-11.5	1,675	-23.2
미국	1,434	-5.8	1,490	3.9
러시아 연방	783	51.6	1,323	68.9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충남의 수입액을 대상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쿠웨이트로부터의 수입이 5,813백만불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국, 일본, 호주,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3) 품목별 수출

- 충남 수출의 품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HS코드가 901380인 ‘그밖의 기기’가 2013년 기준 10,110백만불로 가장 높고 다음은 메모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부분품(853190)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⁷⁾
- 메모리, 부분품(853190), 기억장치(847170) 등의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_5 충남 수출액의 품목별 분포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그밖의 기기(901380)	11,179	-15.1	10,110	-9.6
메모리(854232)	7,281	-21.1	8,327	14.4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 로·증폭기·클럭(clock)·타이밍(t iming)회로나 그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음)(854231)	7,984	17.2	8,095	1.4
부분품(853190)	4,408	101.4	5,164	17.2
기타(271019)	3,984	11.2	3,426	-14
기억장치(847170)	1,663	56.9	2,189	31.7
부분품(851770)	1,177	439.2	1,900	61.4
파라-크실렌(290243)	598	-1.9	1,833	206.7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271012)	1,712	-	1,620	-5.3
스티렌(290250)	1,457	19.9	1,521	4.4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충남 수입의 품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의 수입이 2013년 기준 15,473백만불로 전체 수입액 33,980백만불에서 45.5%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질 석유와 조제품(9.4%), 유연탄(6.3%), 크실올(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7) 이는 액정 디바이스(9013801)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5-6 충남 수입액의 품목별 분포

단위 : 백만불, %

품 목 명	2012		2013	
	금 액	증 가 율	금 액	증 가 율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270900)	16,659	16.1	15,473	-7.1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271012)	3,141	-	3,207	2.1
유연탄(270112)	2,655	-36.7	2,149	-19.1
크실올(270730)	58	-	699	1,109.30
기타(271019)	208	14.8	642	208.4
부탄(액화한 것)(271113)	382	16.6	506	32.3
그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인 것(720712)	395	-54.8	354	-10.4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720449)	285	15	335	17.6
기타(100199)	310	-	305	-1.7
메모리(854232)	31	414.5	280	818.8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 한국무역협회

4) 시군별 수출

표 5-7 충남 시군별 수출액

단위 : 백만불, %

시 군	2012		2013	
	금 액	증 가 율	금 액	증 가 율
천안시 동남구	5,675	-31.6	5,132	-9.6
천안시 서북구	1,131	328.6	2,111	86.6
공주시	1,753	50.3	233	-86.7
보령시	50	5.8	53	6.8
아산시	36,658	1.9	40,146	9.5
서산시	13,250	21.5	13,471	1.7
논산시	189	23.7	185	-2.1
계룡시	1	-10.2	1	-16.9
금산군	102	5.4	109	6.4
연기군	457	27.4	904	97.8
부여군	110	-28.6	116	5.2
서천군	371	-2.5	354	-4.6
청양군	143	3.5	116	-19.4
홍성군	111	26.4	189	70.4
예산군	337	6.7	487	44.2
태안군	10	11.9	16	53.8
당진군	1,680	4.4	1,563	-7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충남의 시군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아산시가 40,146백만불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서산시 13,471백만불, 천안시 동남구 5,132백만불, 천안시 서북구 2,111백만불, 당진시 1,563백만불 등으로 높게 나타남

2. 수출과 일자리

1)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

- 한국무역협회(201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피용자수 변화에 대한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에서 피용자수가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5-8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피용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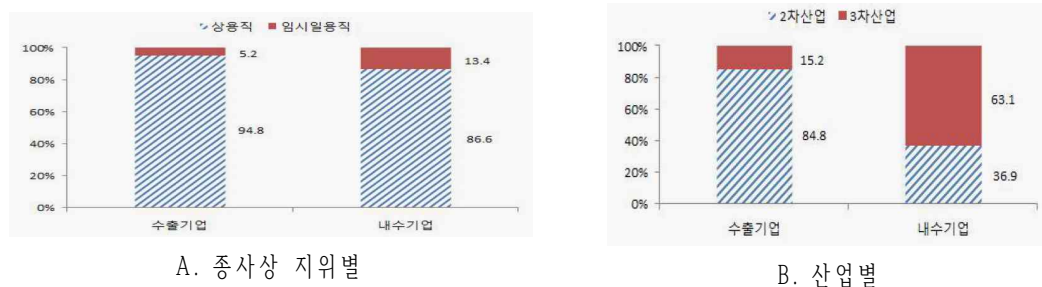
(천명, %)

연도	수출기업			내수기업			전체	
	피용자수 (a)	비중	증감률	피용자수 (b)	비중	증감률	피용자수 (a+b)	증감률
2006(c)	648	25.8	-	1,861	74.2	-	2,510	-
2007	647	26.0	-0.2	1,844	74.0	-0.9	2,491	-0.7
2008	650	25.5	0.4	1,899	74.5	3.0	2,549	2.3
2009	707	26.8	8.9	1,929	73.2	1.6	2,636	3.5
2010	800	29.5	13.1	1,912	70.5	-0.9	2,712	2.9
2011	858	30.3	7.3	1,975	69.7	3.3	2,833	4.5
2012(d)	864	29.9	0.7	2,023	70.1	2.4	2,887	1.9
2012-06년 증감(d-c)	216	4.1	-	161	-4.1	-	377	-

주: 증감률은 전년비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비교 -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2014

그림 5.2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피용자 비중(%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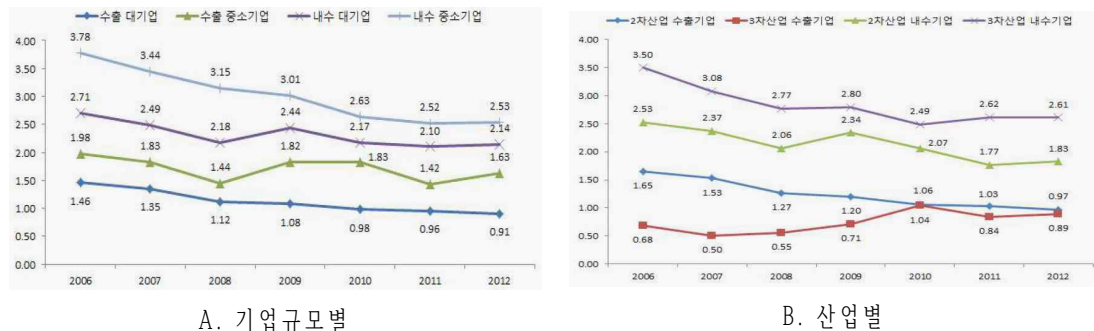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비교 -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2014

- 또한, 종사상 지위별 피용자의 비중을 비교하면 수출기업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94.8%인

반면에 내수기업에서는 해당 비중이 86.6%로 나타나 수출기업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음

- 산업별 피용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에서는 2차산업의 비중이 84.8%인 반면 내수기업에서는 36.9%로 피용자수 기준 수출기업의 2차산업 비중이 내수기업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_3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매출액 대비 고용 추이(10억원 당 고용)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비교 -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2014

2) 충남의 관련 정책

- 충남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무역사절단 모집 및 파견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참가지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 및 충남해외사무소 운영, 온라인해외홍보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충남은 LA와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LA사무소는 2008년에 개소되어 3명의 인력(행정관, 통상관, 계약직 각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하이사무소는 1999년에 개소되어 6명의 인력(소장과 부소장 각 1명과 현지직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충남해외사무소의 주요 기능은 도내 수출업체의 수출지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바이어 상담/알선, 인허가 절차 상담,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관련 물류지원, 통역이나 번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통상기능과 더불어 관광객의 유치, 민간교류의 촉진, 충남의 대외 이미지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

3. 토의

1) 향후 여건변화에 대한 고려

-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와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이며, 콜롬비아와는 서명이 이뤄져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과 협상중에 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등과 FTA 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중에 있음
- 이처럼, 무역자유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임

표 5_9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발효	서명/협상타결	협상중인 국가	공동연구/여건조성
한·칠레 FTA(2004.4.1) 한·싱가포르 FTA(2006.3.2) 한·EFTA FTA(2006.9.1) 한·ASEAN(2007.6.1) 한·인도 CEPA(2010.1.1) 한·EU FTA,(2011.7.1) 한·페루 FTA(2011.8.1) 한·미국 FTA(2012.3.15) 한·터키 FTA(2013.5.1)	한·콜롬비아 FTA (2013.2.21 서명)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 CEP)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2) 수출기업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

표 5_10 국가별 수출활동참여 현황

(개사, %)

	미국(2011년)	독일(2011년)	한국(2013년)
총 사업체수(a)	5,684,424	3,215,095	3,354,320*
총 수출기업수(b)	302,260	359,268	118,707
수출활동 참여율(b/a)	5.3	11.2	3.5

* 2012년 자료 기준

자료: 독일 중소기업연구소(IffM);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한국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비교 -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2014

-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출활동참여율은 3.5%로, 이는 미국의 5.3%와 독일의 11.2%에

비해 낮은 수치에 해당함(한국무역협회, 2014)

- 또한, 전체 수출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75.8%로 역시 미국의 97.8%와 독일의 9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한국무역협회, 2014)

표 5_11 국가별 수출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

(개사, %)

	미국(2011년)	독일(2011년)	한국(2013년)
총 수출기업수(a)	302,260	359,268	118,707
수출 중소기업수(b)	295,594	350,189	89,997
수출 중소기업수 비중(b/a)	97.8	97.5	75.8

주: 한국의 중소기업수는 중소/중견기업 합산 수치임

자료: 독일 중소기업연구소(IWM);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한국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비교 -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2014

-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창출과 생산성에서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도내 중소기업 수출관련 인력의 현황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충남 지역경제에서 수출의 비중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주도하는 주체가 일부 지역 내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지역경제의 위험요소에 해당함
- 이러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 가운데 하나는 지역 내 수출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이는 다시 지역 내 고용의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임

지역고용정책 해외 사례와 충남의 일자리 창출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

1. 지역고용정책 해외 사례⁸⁾

1) 프랑스의 고용센터와 지역임무단(Mission Locale)

- 고용정책의 수행자로서 고용센터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고 기업의 구인관련 어려움의 해결을 지원하며, 주요 역할은 구직자 등록과 상담, 실업수당 등의 지급, 구직활동의 동반, 직업훈련 제공,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분석 및 예측, 기업의 구인관련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고용센터의 운영위원회는 국가 지명 대표 5명, 노동자 노조 대표 5명, 기업가 단체 대표 5명, 지자체 대표 5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프랑스 전역에 922개 지점이 있고 49,407명이 근무하고 있음
- 지역임무단은 프랑스 각 지역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단들을 활용하여 16~25세 청년층의 직업 및 사회생활로의 통합을 근접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프랑스 전역에 450개의 지사와 11천명의 전문가가 속해 있음
- 지역임무단의 주요 업무는 청년층 각자에 적합한 고용에 이르는 경로를 따라 지표와 진로를 제시하거나 상담 및 정보제공 등 고용관련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음

2) 영국의 잡센터 플러스와 근로프로그램

- 잡센터 플러스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구직수당, 소득지원, 근로불능급여 등의 복지급여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해당함
- 영국의 고용정책은 실업자와 복지급여 수혜자로 하여금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는 잡센터 플러스를 통해 추진됨
- 근로프로그램은 기존의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만든

8) 윤윤규 외(2014) 등을 참고하여 작성됨

것으로, 잡센터 플러스에서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취업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주된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음

3) 고용정책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표 6_1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해외 사례

국가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가 지역고용정책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일부만 부담 -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연방은 수급자 급여와 직업소개 비용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수급자 주거비용과 난방비용 등을 부담 - 지자체의 자체자금으로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례 다수 존재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가 지역고용정책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반면, 지자체가 자금 지원이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도시전략시범사업의 경우, 스코틀랜드·웨일스 지역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대부분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은 거의 투입되지 않음 - 근로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은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고용정책 자금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주로 정책집행을 수행하며 일부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 - 지방정부는 주로 훈련분야에서 중앙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자체 고용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보통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가 지역고용정책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주정부도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지방정부는 원스톱고용센터에 임대료나 일부 직원급여 등을 지원하는데 그침 - 지방정부가 자체 자금으로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고, 자체 프로그램 추진의 경우도 자금규모가 매우 제한적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고용정책 자금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사업을 추진 - 오사카 등 일부 지방정부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자금 조성으로 지역취로지원사업 등 독자적인 지역고용정책을 실행

출처 : 윤윤규 외(2014)

2. 충남의 일자리 창출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

1) 연구방향 및 주제

(1) 지역노동시장의 지리적 범위 재설정

- 교통의 발달로 통근가능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한계를 지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근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지역노동시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근지에 의해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를 포함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공동 연구가 요구됨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는 거주지와 통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리적 단위가 시군구이기 때문에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하는데 있어 정확성에서 한계를 지니며 이에 대한 자체 조사가 필요함

(2)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수출산업에 있어서의 노동수급에 대한 미시적 분석

- 충남의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주요 전략산업과 수출산업으로 이들에 있어서의 전문직 노동-연구개발 인력이나 수출전담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이의 불균형 해소방안 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관련 연구가 필요함

(3)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의 질적 개선

- 기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의 양적 창출효과에 치중하고 있으며, 질적 개선-즉, 보수, 안정성 등-을 위한 현황분석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됨

(4) 인구고령화와 한계마을 증가추세에 대한 고려

- 인구의 고령화나 한계마을의 증가에 따른 지역노동시장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대응의 모색이 필요함

2) 분석DB

- 충남의 지역노동시장 관련 정책수립 기초연구를 위한 자료의 구비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노동수요와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미스매치의 완화나 산업별 분석과 같이 특수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